

세계적 양산의 **환상적인 골프경**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 인터넷회원 예약시
- 평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5만원까지 할인가능
-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빛 속의 설원 질주 22일 'FIS(국제스키연맹)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캐나다 앨버타주 레이크 루이스에서 오스트리아 스키 팀의 한 선수가 남부활강경기에 앞서 코스 연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축구 6회 연속 올림픽 진출

박성화호 “4강 가자”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천신만고 끝에 2008 베이징올림픽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지만 최종엔트리에 살아남기 위한 주전경쟁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한국 올림픽 대표팀 감독은 지난21일 경기도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펼쳐진 올림픽 아시아 최종예선 6차전에서 바레인과 득점없이 비겼다. 이로써 3승3무(승점 12)가 된 한국은 조 2위 바레인(3승2무1패·승점 11)을 승점 1점 차이로 간신히 따돌리고 조 1위팀에만 주어지는 본선 티켓을 따냈다.

한국 축구는 개최국 자격으로 자동 출전한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6회 연속 올림픽 본선 무대를 밟게 됐다. 통산 8번째 본선 진출이다.

이제는 올림픽 4강 진출이 첫 번째 목표가 됐다.

주전 경쟁은 지금부터

축구협 숨은 인재 찾기

한국 대표팀은 일단 이날 경기 후 차출 규정에 따라 선수들을 소속팀으로 돌려보냈다.

대한축구협회 대표팀 지원부에 따르면 대표팀은 차출 규정에 따라 내년 초 3주 동안의 보강훈련기간에 해외 전지훈련을 떠날 예정인데 박 감독은 이때 선수들을 다시 소집한다. 하지만 바레인전 때 대표 선수로 뛰었던 선수들이 그대로 모인다는 보장은 없다.

일부는 부상 때문에 빠지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부상에서 회복돼 다시 러브콜

을 받을 선수가 나올 수 있다.

오는 25일과 다음달 2일 FA컵 결승 1, 2차전에서 뚜렷한 활약을 보이는 포항 스틸러스나 전남 드래곤즈 선수가 새롭게 발탁될 가능성도 있다.

박성화 감독은 바레인전 직후 대표팀 구성 변화에 대해 “아직 생각해 본 건 전혀 없지만 부족한 공격력은 훈련을 통해 보완하겠다. 또 부상 회복 중인 스트라이커 자원이 돌아오면 나아질 것”이라며 내년 전지훈련 소집 명단을 일부 수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6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지만 누가 베이징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 있을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내년 8월8일 베이징올림픽이 개막할 때까지 대표 선수들은 험난한 주전 경쟁을 계속해야 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국축구 위기... 거품 빼라”



허정무 전남감독, 대표팀에 쓴소리

“기본기·전술·책임감 등 기대이하”

“지금 한국축구는 거품이 많습니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국가대표팀 사령탑을 맡았던 허정무 전남 드래곤즈 감독 <사진>이 현재 한국 축구 대표팀에 거침없이 쓴 소리를 쏟아 부었다.

허정무 감독은 22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FA컵 축구선수권대회 결승전 포항 스틸러스와 1차전(25일)을 앞둔 공식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축구가 위기에 처해 있다. 올해 아시안컵 대회나 올림픽 대표팀 경기 등 각종 연령별 대표팀을 보면 2002년 한일월드컵을 정점으로 위기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 성인대표팀이 올해 아시안컵 축구대회에서 ‘음주 파동’을 일으킨 데 이어 올림픽 대표팀 역시 2008 베이징올림픽 최종예선에서 졸전 끝에 본선행 티켓을 가까

스로 따낸 데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허 감독은 “한일월드컵 이후로 대표팀은 국민에게 기대 이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반면 다른 나라들은 경각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 아시안컵만 봐도 우리나라가 동남아 국가와 비교해 볼 때 기본기나 전술 면에서 결코 낫다고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표팀으로서 경기에 임하는 자세나 책임감이 부족했다. 거품이 끼어있다”고 비판의 강도를 더욱 높였다.

허 감독은 또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예선에서 성인 국가대표팀을 이끌 사령탑 선발에 대한 자신의 견해도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 누구를 직접 거론할 수는 없지만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좋은 분이 왔으면 좋겠다. 국내 감독이든 외국인 감독이든 상관 없이 적임자가 대표팀 감독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25일 전남과 FA컵 결승 1차전을 치르는 포항의 세르지도 파리아스 감독 역시 아시

안컵 축구 대회에서 발생한 한국 대표팀의 ‘음주 파동’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파리아스 감독은 “참 아쉬웠다. 프로다운 자세를 보여야 했다. 인간이라 잘못하거나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한번 잘못된 일이 있으면 벌칙을 받는 게 맞다. 브라질 대표팀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 같은 경험을 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골프·연도 회원권개별 전문기업			
특펠러 회원권			
골프 장	시세(만원)	골프 장	시세(만원)
광주	3,500	광명	5,200
남양주	4,300	파인힐스	12,200
송주	8,200	할렘	7,400
 상담문의 (062)351-0095			

■ 제1회 광주일보배 아마추어 골프대회 D-3

-이색 참가자들

64세 최고령 정행용씨 “우승 트로피 내 것”

“우승 자신있습니다” ‘넙치는 부부애, 우승 트로피는 우리 차지입니다’

순수 남녀 아마추어 골퍼들의 가을잔치가 될 ‘제1회 광주일보배 전국 아마추어 골프대회’가 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에서 참가한 160여명의 아마추어 골퍼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오는 26일 호남최초 4계절 양산디 골프장 함평다이내스티CC에서 개최 될 이번 대회는 접수 첫날부터 80명이 참가접수를 마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3일째 이미 160명의 참가자들이 마감되는 등 신청자들이 쇄도했다. 이때문에 미처 등록하지 못한 200여명 골퍼들은 “참가신청수가 너무 적다”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번 대회에 신청을 한 골퍼들은 주로 30~40대의 아마추어 골퍼들로 광주 뿐

오경호씨(22세) 최연소

부부 참가자도 5쌍

만 아니라 경기지역, 여수, 광양, 경남, 충남등에서 신청자들이 몰렸다.

이번대회 최연소 참가자로 등극한 오경호(22)씨는 젊은 패기와 배짱을 앞세워 우승컵에 도전하겠다는 출사표를 밝혔고, 함평다이내스티CC VIP회원인 정행용(64)씨는 최고령 참가자로 젊은이가 갖지 못한 노련함과 차분함으로 첫 대회 패권을 노리고 있다.

이춘열·추오순씨 부부와 문명하·박명례, 홍태준·정삼례, 김태운·박정희, 정행용·전금례씨 등 5쌍의 부부참가자들은 함평다이내스티CC의 멋진 경관을 즐기며 부부애를 다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

서도 그들은 ‘그렇다고 우승에 대한 생각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며 욕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

조민규(32)씨는 경남 진주에서 출사표를 던졌으며 강성실(여·34), 민경주(49), 장이기(45), 한상웅(39)씨들은 충남 보령에서 광주일보배를 갖기 위해 샷을 다들고 있다.

한편 이번대회가 치러지는 함평다이내스티CC는 4계절 양산디 골프장으로 현재 초겨울 날씨에도 푸른 페어웨이를 유지하고 있다.

또 함평다이내스티CC는 그린스피드를 주말골퍼들이 즐기는 일반적 스피드보다 1.5배정도 빠른 9피트 이상을 유지해 출전자들이 최적의 그린상태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위창수 베트남 마스터스 티샷

22일 베트남에서 개최된 ‘하나은행 아시아마스터스 골프대회’에 참가한 위창수가 10번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